연구논문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측정방법 연구:
사회정체성에 관한 대학생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A Way of Measuring Political Leaders' Image:
In Case of College Students

이 명 진** · 최 샛 별***

Myoung-Jin Lee · SetByol Choi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나 문화 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책임감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정치지도자들이 각 차원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 본 논문은 2003년도 국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이다. 이론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료분석과 도표작성을 도와 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구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명진. E-mail: mjlee@kookmin.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객원교수.

가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친밀감, 책임감,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권력이나 책임감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정치지도자들이 정치현실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사회정체성을 살펴보면, 그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다.

주제어: 사회정체성, 정치지도자, 이미지, 요인분석

This paper examines political leaders' image based on the concepts of social identity and distance. These concepts come from the two ideas: (1) Individuals create events to confirm the sentiments that they have about themselves and others in the current situation. (2) During this process structured sets of beliefs (social identity) about attributes of various entities are form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offers three main findings. First, attributes clustered into four major groups—sociability, responsibility, power and activity. Sociability concerns as sense of approval or disapproval that can elaborated into closeness and intimacy. Responsibility relates to the judgement of morality, public obligation, or other standards. Power refers to social power, physical magnitude and so on. Activity indexes an entity's spontaneity, which can be elaborate into judgements of agency, speed and so on. Second, respondents evaluate negatively political leaders at the dimensions of sociability, responsibility, and activity. They are positively evaluated only at the dimension of power. Third, political leaders who are felt to be closer than others seem to have more political support nowadays.

key words: Social Identity, Political Leaders, Image, Factor Analysis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정치과정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을 쉽게 접하고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곤 한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투표행위를 하기도 한다(김학수 1997; 이준웅 1998).[1] 구미의 많

1)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사실 때로는 현실정치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

은 학자들이 정치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 오고 있다(Katz & Feldman 1962; Drew & Weaver 1991; Chaffee et al. 1994).

한국사회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정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연구해 오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범위도 다양하다. 이미지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학수 1997), 그러한 이미지가 실제투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도 있다(조기숙 1995; 이준웅 1998).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안광식 · 최선열 1990; 김광수 1998).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정치에서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대중들의 관심이 크다. 이에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선거가 가까이 오면 이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중앙일보 1996; 월간조선 2002; 조선일보 2002; 중앙일보 2002).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미지 측정방법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많은 경우에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조사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응답자들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몇 개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거나, 연상되는 특정한 형용사나 명사를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사결과도 일시적인 흥미거리로만 여겨지고 있고,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지식의 축적이나 방법론의 발달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조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시적인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이미지의 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제시하게 된다. 따

지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조작의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다.

라서 이러한 방식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와 비교하거나 관련된 주제의 연구에 응용하기가 힘들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이라는 한정된 인물들 사이에서는 이미지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차원에서 이미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셋째,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조사가 다루고 있는 이미지가 대부분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각 형용사 범주별로 빈도나 백분율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김학수 1997).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기본적인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인 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인 틀을 이용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이 인물이나 사물을 평가하는 전체적인 흐름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려는 것이다(Kemper & Collins 1990).

이를 위해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평가되고 이미지가 형성되는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개념은 사람들이 사물이나 인물같은 대상을 평가(이미지를 형성)할 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특정 대상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Osgood et al. 1975). 따라서 이러한 사회정체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이용한다면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사회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측정

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물이나 인물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정치지도자의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물과 인물들을 함께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교 대상이 되었던 사물과 인물들을 포함하여 조사하고자 한다(Heise 1966; Osgood et al. 1975).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 이론이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 혹은 사물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로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물이나 사물같은 하나의 대상을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한다. 동시에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해 나간다(Taifel 1979; Britt & Heis 2000).

사회정체성 이론은 1970년대 말 타이펠(Tajfel)과 터너(Turner)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이론은 '분류화'(categorization), '정형화'(iden-tification)와 '비교'(comparison)라는 3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분류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물끼리 분류하듯이,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형화'의 의미는 사람들이 집단을 자기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비교'는 사회적 비교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슷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획득해 나간다는 것이다(Turner, et al. 1979; Taifel 1979; Kemper &

Collins 1990).

사회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시 된다. 많은 고전과 근대 연구들은 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공유된 사회정체성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의 사회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들을 보다 타인들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고(Allen & Wilder 1975, 1979; Mackie 1986), 보다 협동적으로 작업하게 되며(Abrams et al. 1990; Back 1951),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의식하게 되고(Deutsch & Gerard 1955; Mackie et al. 1992; Wilder 1990),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Brock 1965; Mackie et al. 1990)와 행동양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동조를 이끌어 낸다는(French & Raven 1959; Wilder & Shapiro 1984) 점들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2. 이미지 측정

사회정체성이나 이미지에 관한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주관적 감정들(affective meanings)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정체성의 개념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사회적 행동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사회정체성과 이미지는 사회화의 영향을 통해 내재화되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Heise 1970; Heise 1985; Dunphy & MacKinnon 2002).

이에 대해 사회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주관적인 측면도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문화와 사회를 넘어서 상징들의 감정적 의미를 구별하는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주관적 감정은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Osgood et al. 1975; Heise 1985; Dunphy & MacKinnon 2002).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사물이나 인물이 갖는 특정한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비교 연구하려는 활발한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인 오스굳 등(Osgood et al. 1975)은 다변량 분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이 갖는 이미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인물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몇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에 20여개 이상의 문화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이즈(Heise 1979)는 수학적으로 이미지와 관련된 인간두뇌학적인 체계를 모형화하였다. 이 모형은 인간의 마음이 역할, 감정, 속성, 명명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개념과 이에 상응한 이미지를 구성할 때 어떠한 체계를 이용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문화인류학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롬리 등(Romney et al. 1986)은 한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는 몇 개의 중요한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 연구문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사회정체성들을 바탕으로 하여 2002년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체성들과 같이 분석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이미지 자체가 갖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조사할 때 그 결과의 범위나 해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러한 한정된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이

나 정치상황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검증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회정체성과 함께 하는 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으로 형성된 응답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정체성 조사의 핵심적인 발견이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서 타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스굳 등(Osgood et al. 1975)은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정체성은 소수의 몇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수의 몇 개의 차원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Langford & Mckinnon 2000).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자료에서 유사한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소수의 차원이 발견되면, 각 차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 자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정체성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상대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회정체성이 높은 평가 혹은 낮은 평가를 받는가를 검토하여, 각 차원의 의미를 살펴본다. 셋째, 주요 차원을 기준으로 주요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통해 이들의 명시적 혹은 잠재적인 이미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이미지는 각 정치지도자들과 유사한 평가를 받는 사회정체성이 무엇인가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서 알아 본다.

III. 자료와 분석

1. 자료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사회정체성 이론이라는 연

구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대상자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사회여론조사에서처럼 응답대상자들을 표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은 개인들의 반응을 보다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가진 표본들을 통해 성별, 세대간, 교육수준별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의 확장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응답자들이 모두 사회정체성과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거나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은 자료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특정한 집단만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대학생과 같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고학력층은 사회정체성에 관한 주관적 반응을 비교적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정체성과 이미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각종 형용사의 어감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sgood et al. 1975). 따라서 대학생들은 한 사회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적절하다. 아울러 연구자들이 조사과정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연구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전체사회에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세대와 같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배경변수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거나 분석결과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단점과 조사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소재 4년제 대학(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의 재학생이 응답대상자로 설정되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될 각종 형용사(수식어)를 결정하는 사전조사단계에서는 국민대와 연세대 재학생 약100여명이 응답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총567여명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각 조사단계에

서 성비는 최대한 남녀 비율이 유사하도록 조절하였다.

2. 요인추출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한 각종 대상에 대한 이미지조사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종의 사전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각종 대상을 특징짓는 각종 수식어를 종합화한다. 일단 남녀 각각 50여명으로 응답자군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응답자들은 각종 사회정체성조사에서 사용된 사물과 인물 100개에 대한 이미지를 수식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수식어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수식어 52개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수식어는 사전에 근거해서 반대말과 짝지어졌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일종의 척도를 구성할 수 있고, 등간척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다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두 104개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대상들은 사회정체성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온 것들이다(Osgood et al. 1975). 물론 한국사회의 고유한 몇 개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족관계, 사물, 직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박정희, 김대중,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포함시켰다.

먼저 남녀 비율이 유사하게 할당된 567여명 대학생들은 각각의 대상에 대해 52개의 수식어 척도별로 평가하였다. 다만 각각의 응답자가 모든 대상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 각 응답자는 약 3~4개 정도의 대상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부록 1>은 평가대상과 각 형용사 목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구해진 자료는 모두 52개의 형용사가 변수로 부호화되어 있는 자료이다. <표 1>은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

〈표 1〉 사회정체성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친밀감	책임감	권력	활동성
편하다/어렵다	.847			
따뜻함/차가움	.829			
다정한/냉담한	.812			
부드러운/딱딱한	.806			
너그럽다/엄하다	.789			
친함/소원하다	.741			
가깝다/멀다	.740			
자상한/무심한	.732			
좋다/싫다	.705			
무섭다/안 무섭다	.689			
친절/불친절	.687			
사랑/미움	.667			
반갑다/귀찮다	.650			
소중한/하찮은	.599			
민주적/권위적	.591			
아름다운/추함	.537			
싹싹한/무뚝뚝한	.508			
정상적/이상한	.502			
융통/고집				
정직/부정직		.693		
희생적/이기적		.678		
훌륭한/보잘것없다		.668		
믿음/믿음없다	.509	.641		
용감한/비겁한		.635		
철들다/철없다		.625		
든든함/못미더운		.616		
청렴한/부패한		.609		
차분한/들떠있는		.602		
현명한/어리석은		.601		
자랑/부끄러움		.589		
강하다/약하다		.526		
소신/소신없다		.523		
존경/멸시		.517		

뒤로 계속 →

→ 앞에서 계속

유능한/무능한				
똑똑한/멍청한				
멋있다/촌스럽다				
권력/권력없다			.837	
권위적/비권위적			.811	
높다/낮다			.765	
위엄/경박			.724	
교양/상스럽다				
깔끔한/구질구질				
활동적/수동적				.747
빠르다/느리다				.738
건강/허약				.643
호탕/답답				.639
예리함/둔함				.520
공정한/불공정한				
진보적/보수적				
귀엽다/징그럽다	.508			
젊다/늙다				
순종적/반항적				
설명 비율	23.0%	16.1	9.1	9.0

주1: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전 방법 베리맥스를 이용하였다.

주2: 요인점수는 .5 이상 값을 가지는 경우만 제시하였다.

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기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을 제시하지만, 여기에서는 일곱 개의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네 개의 요인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 0.5보다 큰 값을 가질 때만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발견되는 결과는 기존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크게 평가, 권력, 활동성이라는 세 개의 요인이 나타난(Osgood et al. 1975; Langford & Mackinnon

2000) 반면, 이 연구에서는 평가차원이 개인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으로 보다 분화되어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요인은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차원이다. 따라서 그 의미도 조금은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의미를 보고 각 요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각 요인과 관계가 깊은 변수들을 살펴보면서 요인의 의미를 추정한다. 먼저 제 1요인을 보게 되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많다. 특히 자기가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들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편하다, 따뜻하다, 다정하다, 부드럽다 같은 형용사들이 제 1요인과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형용사들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제 1요인은 응답자와의 친밀감(sociability)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 1요인은 전체 자료의 변량 중 약 23.0%를 설명하고 있다.

제 2요인은 정직, 희생적, 책임감, 믿음, 용감한, 존경하다 같은 형용사와 높은 관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주로 공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제 2요인은 대상의 책임감(responsibility)을 평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요인은 약 16.1%를 설명하고 있다.

제 3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 이 요인 역시 공적인 측면 혹은 사회생활과 관계가 깊다. 관련이 큰 형용사로는 권력있다, 권위적이다, 높다, 위엄있다 등이다. 따라서 제 3요인은 대상의 권력(power)을 평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요인은 약9.1%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4요인은 활동적, 빠른, 건강한 등의 형용사들과 관

2) 이러한 사실이 한국사회 혹은 동북아시아 사회들의 독특한 특성인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아니면 방법론적인 문제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 등에 근거해, 보다 근본적인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현재 저자들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연구가 진행중이다.

련이 많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인을 활동성(activity)이라고 간주한다. 제 4요인은 설명력에 있어서 제 3요인과 유사하다. 제 4요인은 전체 자료의 변량 중 약 9.0% 정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추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대상별로 회귀분석법으로 산출한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2>는 주요 사회정체성들에 대한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각 요인별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열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제 1요인에 대한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요인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친구와 아내가 친밀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사채업자, 간첩 등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중에는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친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사한 평가를 받는 대상으로는 게으름뱅이, 간호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몽준으로 아저씨, 학생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몽준 다음으로는 노무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은 친밀성에서 주정뱅이, 시누이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영웅과 위선자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이회창과 박정희는 상대적으로 친밀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회창은 비행기조종사, 점쟁이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박정희는 깡패, 사업자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요인점수의 분산은 얼마나 응답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요인점수의 분산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부분의 대상에 대해서 응답자의 의견의 일치정도가 유사하다. 특히 의견의 일치정도가 큰 대상은 대통령, 정치가, 컴퓨터, 사채업자 등이다. 정치지도자로는 이회

〈표 2〉 주요 사회정체성별 요인점수 평균과 분산

친밀감			책임감			권력			활동성		
정체성	평균	분산	정체성	평균	분산	정체성	평균	분산	정체성	평균	분산
친구	1.41	0.33	스님	1.35	0.85	교수	1.65	0.50	바람둥이	1.79	1.02
아내	1.34	0.28	비행기	1.20	0.91	교장	1.42	0.35	사기꾼	1.25	1.90
게으름뱅이	0.37	0.49	박정희	0.28	0.87	대통령	1.14	0.81	영웅	0.95	0.84
김대중	0.27	0.45	이혼녀	0.14	0.33	변호사	1.14	0.57	정몽준	0.47	0.46
아저씨	0.16	0.70	김대중	0.14	0.34	사장	1.11	0.81	후배	0.46	0.50
정몽준	0.15	0.57	친구	0.12	0.47	이회창	1.11	0.64	대통령	-0.20	0.47
노무현	-0.11	0.53	정몽준	-0.44	0.45	정치가	1.08	1.59	노무현	-0.20	1.05
시누이	-0.13	0.42	주정뱅이	-0.45	0.55	박정희	1.04	0.45	점쟁이	-0.23	1.00
비행기	-0.82	0.33	마약중독자	-0.46	0.18	정몽준	1.02	0.57	이회창	-0.24	0.69
이회창	-0.82	0.21	노무현	-0.46	0.83	공무원	0.24	0.73	김대중	-0.76	0.24
박정희	-1.14	0.46	이회창	-0.49	1.66	노무현	0.22	1.04	할아버지	-0.84	0.37
사채업자	-1.28	0.24	국회의원	-1.55	0.95	주정뱅이	-1.35	0.61	홀아비	-1.14	0.34
간첩	-1.37	0.89	바람둥이	-2.22	1.03	창녀	-1.50	0.43	게으름뱅이	-1.52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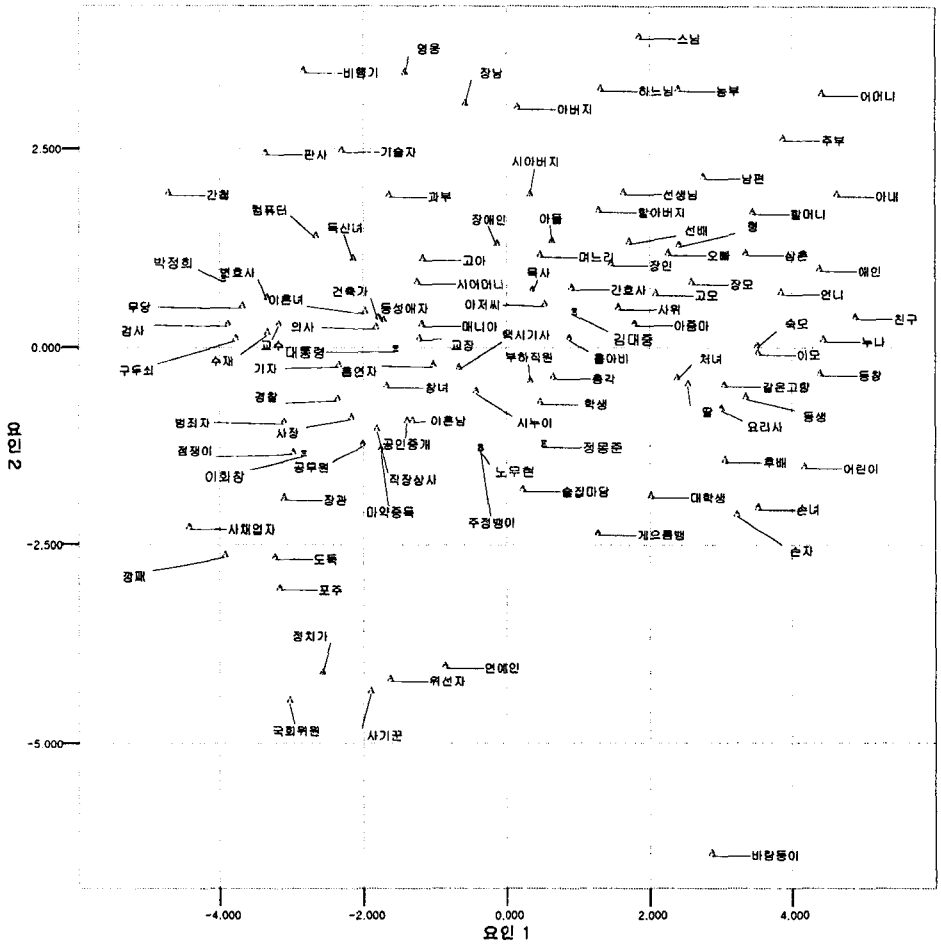
창에 대한 의견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어도 친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회창이 다른 정치지도자들에 비해 이미지에 대한 일치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회창의 경우에 이회창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친밀감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두 번째 열은 제 2요인에 대한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보여 주고 있다. 제 2요인은 책임감을 의미하는 요인이다. 이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는 대상은 스님, 비행기

조종사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주는 대상은 국회의원과 바람둥이이다. 정치인들은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박정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박정희와 유사한 대상으로는 애인과 장모이다. 그 다음으로 김대중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은 이혼녀와 친구와 유사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몽준은 공무원, 주정뱅이와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정뱅이, 마약중독자와 유사한 평가를 받는 노무현이 낮은 점수를 보인다. 점쟁이와 유사한 평가를 받은 이회창은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책임감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회창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요인점수의 분산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의견의 일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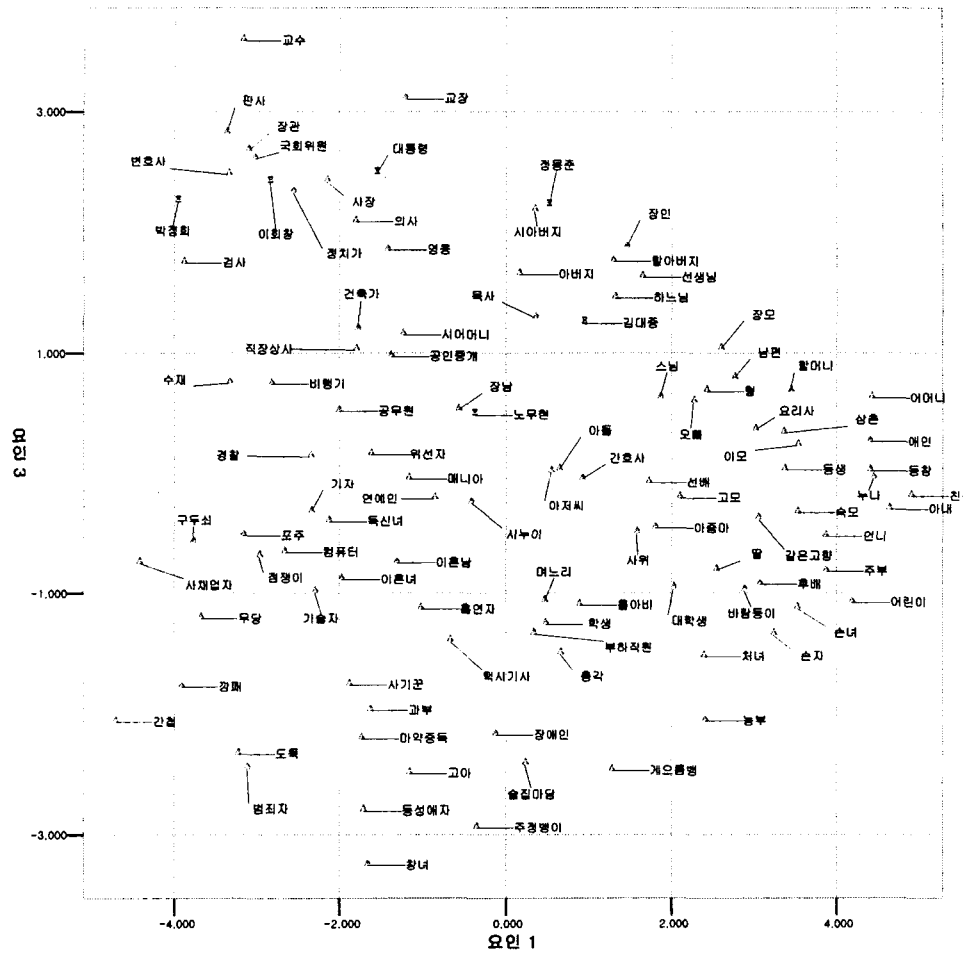
〈그림 1〉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제 1요인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제 2요인에 대한 요인점수 평균값을 좌표로 삼아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자료를 설명하는 데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 차원의 고유값의 제곱근을 적용하였다.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는 친밀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상들이 나타난다. 주로 어머니, 주부, 아내 등 여성과 관련이 많은 대상들이다.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인, 국회의원 등은 이에 비해 좌측하단에 많이 위치해 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도 않고, 공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정희와 김대중은 공적인 측면(책임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의 세 번째 열에서는 권력을 의미하는 제 3요인에 대한 대상별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인에서는 교수, 교장에 대한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동성애자, 주정뱅이, 창녀에 대한 요인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정치인들은 이 요인에서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회창은 국회의원, 대통령, 변호사, 사장 등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림 1〉 사회정체별 요인점수 (친밀감 vs. 책임감)

지위들과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다음으로는 박정희, 정몽준 등으로 나타난다. 김대중은 목사, 건축가와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은 공무원, 요리사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제 3 요인에서는 이러한 노무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일치 정도는 비교적 낮



〈그림 2〉 사회정체별 요인점수 (친밀감 vs. 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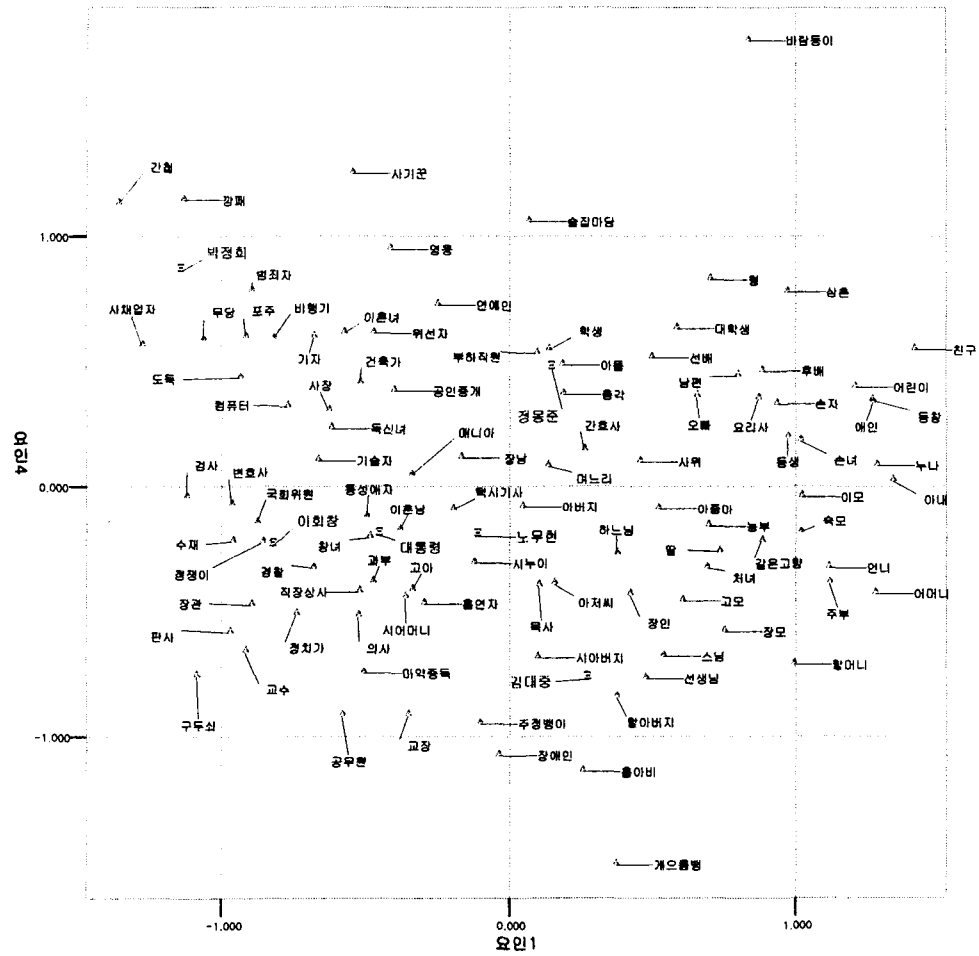
은 편이다. 노무현에 대한 요인점수의 분산은 장관, 국회의원, 정치인 등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다.

제 3요인도 다른 도표와 함께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는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는 제 1요인과 제 3요인을 도표에 제시하고 있다. 도

표의 좌측상단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위들이 위치해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지만,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상들이다. 교수, 판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이회창, 정몽준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 상대적으로 가깝다. 노무현, 김대중은 이들 집단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반면에 우측하단에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들이 위치해 있다. 손자, 손녀, 처녀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표 2〉의 마지막 열은 활동성을 의미하는 제 4요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둥이와 사기꾼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홀아비, 게으름뱅이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중에서는 박정희가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희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영웅과 형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몽준으로 아들과 후배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무현은 대통령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이회창은 점쟁이, 딸 등과 유사한 요인점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과 유사한 평가를 받는 대상은 선생님, 할아버지 등이다.

마지막 그림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제 1요인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제 4요인으로 구성한 도표이다. 우측상단에는 친밀하고 동시에 활동적인 대상이 위치해 있다. 대표적인 대상이 바람둥이이다. 우측하단에는 친밀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김대중 등이 위치해 있다.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박정희는 활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친밀감은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정몽준은 활동성과 친밀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밀감도 낮고 활동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사회정체별 요인점수 (친밀감 vs. 활동성)

IV. 맺음말

이 연구는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비교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나 문화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사회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이용하여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조사이고 한정된 변이만을 갖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문화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한 시도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틀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지속적이고 비교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인 정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 같이 한정적인 집단의 이미지를 조사할 경우 결과도 제한적이다. 이들 이미지의 변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는 정치지도자들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미지를 조사할 때는 얻기 힘들다. 넷째, 방법론상으로도 수식어나 형용사 위주로 구성된 자료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평가나 규범에 근거한 주관적인 측면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접근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징은 관련분야에서 유사한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다양한 인물이나 사물을 포함한 사회정체성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책임감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나타낸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우선 정치지도자들은 대체로 친밀감, 책임감, 활동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견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책임감은 낮지만 권력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공적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Lew et al. 2003).

아울러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집락이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원인 친밀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몽준은 상대적으로 박정희와 이회창에 비해 높다. 두 번째 차원인 책임감에서는 박정희와 김대중은 정몽준, 노무현, 이회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 번째 차원인 권력에서는 박정희, 이회창, 정몽준이 김대중과 노문현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차원인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정희, 정몽준이 노무현, 이회창, 김대중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할 때, 박정희, 이회창이 서로 유사하다. 반면에 노무현, 김대중, 정몽준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과 최근의 대통령 당선자들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조사대상자들인 대학생들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선호도는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지도

자로서 책임감이나 권력보다는 친밀감이나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일종의 바로메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실시되는 이미지조사는 조사자의 관심이나 그 시점에서 중요한 쟁점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번 연구처럼 사회정체성을 이용한 이미지조사는 전체 문화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료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시계열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시도는 앞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응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그 동안 빠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세대간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의견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세대별로 사회정체성이나 이미지의 차이도 많이 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여론조사에서처럼 광범위한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응답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대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계층같은 사회경제적인 변수와 관련하여, 사회정체성을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거나 분석결과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평가 혹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독립변수나 이러한 평가와 이미지가 구체적인 태도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응답을 요구하는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일반인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들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연구처럼 기초적인 시도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조사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광수. 1998. "정치 광고 후보자의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 : 광고태도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Vol.9, No.2, 69-88.

김학수. 1997. "정치인 이미지의 새 조사방법: 제15대 대선후보 중심의 시험연구." 97-98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논문. http://www.assembly.re.kr/html/97-98kimh.htm

월간조선. 2002.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각 후보 모습." 2월호.

안광식 · 최선열. 1990. "커뮤니케이션과 투표형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신문학보』 25:75-123.

이준웅.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2호, 243-284.

조기숙. 1995. "한국 유권자의 정당본위 투표." 『의정연구』 제1권 제1호, 156-183.

조선일보. 2002. "첫 대선 예비주자 11명 이미지 조사." 3월 4일.

중앙일보. 1996. "국민의 눈에 비친 대선주자들." 1996년 9월 23일.

_____. 2002. "대선주자 '빅'리더쉽 집중탐구." 10월 27일.

Britt, Lory, and D. Heise. 2000. "From Shame to Pride in Identity Politics." Sheldon Stryker, Timothy Owens, and Robert White eds.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200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haffee, Steven H., Xinshu Zhao, and Glenn Leshner. 1994. "Political Knowledge and the Campaign Media of 1992." *Communication Research* Vol. 21, No.3, 305-324.

Drew, Dan and David Weaver. 1991. "Voter Learning in the 1988 Presidential Election: Did the Debates and the Media Matter?" *Journalism Quarterly* Vol. 68, No.1/2, 27-3.

Dunphy, Tara, and Neil MacKinnon. 2002. "A Proposal for Integrating Folklore and Affect Control Theory."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Vol. 6, No. 3.

Heise, D. R. 1966. "Sound-Meaning Correlations among 1,000 English Words." *Language and Speech* 9, 14-27.

_____. 1985. "Affect Control Theory: Respecification, Estimation, and Tests of the Formal Model."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1, 191-222.

Katz, Elihu and Jacob J. Feldman. 1962. "The Debates in the Light of Research: A Survey of Surveys." in Sidney Kraus ed. *The Great Debates: Kennedy vs. Nixon*, 1960, 173-223.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Kemper, T. David, and Randall Collins. 1990. "Dimensions of Micro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32-68.

Lew, Seok-Choon, Mi-Hye Chang, and Young Bae. 2002. "Good Government, Social Capital, and Trust: Korea, Denmark and Sweden."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29, No. 2, 35-73.

Langford, Tom and Neil Mackinnon. 2000. "The Affective Bases for the Gendering of Traits: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3, No. 1:34-48.

Osgood, Charles E., G. J. Suci and P. H. Tannenbaum.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Osgood, Charles E. 1962. "Studies on the Generality of Affective Meaning Systems." *American Psychologist* 17, 10-28.

Osgood, Charles E., W. H. May, and M.S. Miron.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Taifel, Henri.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rner, J C, Brown, R J, Tajfel, Henri.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Apr-June: 187-204.

Romney, A. Kimball, Susan C. Weller, and William H. Batchelder. 1986. "Culture as Consensus: A theory of Culture and Informant Accuracy." *American Anthropologist* 88: 313-338

<부록 1> 조사 대상

1-A 건축가	1-B 구두쇠	1-C 같은 고향 사람	1-D 총각
2-A 비행기조종사	2-B 영웅	2-C 어머니	2-D 이혼녀
3-A 이회창	3-B 아내	3-C 게으름뱅이	3-D 무당
4-A 의사	4-B 범죄자	4-C 선생님	4-D 오빠
5-A 위선자	5-B 손녀	5-C 이모	5-D 경찰
6-A 삼촌	6-B 기술자	6-C 주정뱅이	6-D 바람둥이
7-A 택시기사	7-B 마약중독자	7-C 동생	7-D 며느리
8-A 아들	8-B 장인	8-C 사채업자	8-D 기자
9-A 흡연자	9-B 아저씨	9-C 점쟁이	9-D 이장관
10-A 시아버지	10-B 형	10-C 처녀	10-D 교수
11-A 고아	11-B 깡패	11-C 마니아	11-D 변호사
12-A 농부	12-B 연예인	12-C 고모	12-D 장모
13-A 아버지	13-B 이혼남	13-C 사장	13-D 간첩
14-A 할아버지	14-B 부하직원	14-C 수재	14-D 요리사
15-A 딸	15-B 박정희	15-C 손자	15-D 애인
16-A 직장상사	16-B 대학생	16-C 포주	16-D 장애인
17-A 술집마담	17-B 주부	17-C 누나	17-D 국회위원
18-A 언니	18-B 과부	18-C 공무원	18-D 도둑
19-A 목사	19-B 선배	19-C 컴퓨터프로그래머	19-D 판사
20-A 친구	20-B 정치가	20-C 시누이	20-D 남편
21-A 할머니	21-B 동성애자	21-C 스님	21-D 후배
22-A 하느님	22-B 검사	22-C 홀아비	22-D 노무현
23-A 창녀	23-B 사위	23-C 교장	23-D 동창
24-A 시어머니	24-B 사기꾼	24-C 아줌마	24-D 학생
25-A 김대중	25-B 대통령	25-C 숙모	25-D 장남

<부록 2> 형용사 목록

1.따뜻하다 ..... 차갑다
2.좋다 ..... 싫다
3.편하다 ..... 어렵다
4.무섭지 않다 ..... 무섭다
5.민주적이다 ..... 권위적이다
6.공정하다 ..... 불공정하다
7.너그럽다 ..... 엄하다
8.높다 ..... 낮다
9.위엄있다 ..... 경박하다
10.소중하다 ..... 하찮다
11.존경스럽다 ..... 멸시받는다
12.친하다 ..... 소원하다
13.교양있다 ..... 상스럽다
14.청렴하다 ..... 부패하다
15.예리하다 ..... 둔하다
16.활동적이다 ..... 수동적이다
17.깔끔하다 ..... 구질구질하다
18.든든하다 ..... 못 미덥다
19.귀엽다 ..... 징그럽다
20.순종적이다 ..... 반항적이다
21.소신있다 ..... 소신없다
22.현명하다 ..... 어리석다
23.융통성있다 ..... 고집스럽다
24.철들다 ..... 철없다
25.싹싹하다 ..... 무뚝뚝하다
26.권력있다 ..... 권력이 없다
27.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28.가깝다 ..... 멀다
29.멋있다 ..... 촌스럽다
30.정직하다 ..... 부정직하다

31.자상하다 ..... 무심하다
32.부드럽다 ..... 딱딱하다
33.사랑스럽다 ..... 밉다
34.재빠르다 ..... 느리다
35.용감하다 ..... 비겁하다
36.희생적이다 ..... 이기적이다
37.훌륭하다 ..... 보잘 것 없다
38.젊다 ..... 늙다
39.권위가 있다 ..... 권위가 없다
40.다정하다 ..... 냉담하다
41.아름답다 ..... 추하다
42.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43.반갑다 ..... 귀찮다
44.유능하다 ..... 무능하다
45.차분하다 ..... 들떠있다
46.똑똑하다 ..... 멍청하다
47.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48.건강하다 ..... 허약하다
49.호탕하다 ..... 답답하다
50.자랑스럽다 ..... 부끄럽다
51.정상적이다 ..... 이상하다
52.강하다 ..... 약하다